<h1>나 혼자만 레벨업-75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t8156bb17cd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75화</p>  
<p>이전에 한번 갈림길에 섰을 때 진우는 '저주받은 랜덤 박스' 대신 '축복받은 랜덤 박스'를 골랐다.</p>  
<p>선택의 결과는 악마성의 열쇠.</p>  
<p>덕분에 악마성 던전에 들어와 많은 것을 얻었다. 레벨도 많이 올랐고, 아이템도 늘었고, 골드는...</p>  
<p>이제 조금은 써 줘야 하는 게 아닐까 걱정될 정도로 벌었다.</p>  
<p>'다시 기회를 준다고 해도 주저없이 같은 선택을 하겠지.'</p>  
<p>하지만.</p>  
<p>그렇다고 해서 선택의 다른 결과가 궁금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.</p>  
<p>원하는 것을 준다고 했던 '축복받은 랜덤 박스'와 필요한 것을 준다고 했던 '저주받은 랜덤 박스'.</p>  
<p>다른 한쪽엔 뭐가 들어 있었을까?</p>  
<p>'축복받은 랜덤 박스에는 확실히 내가 원하던 게 있었는데 말이야.'</p>  
<p>지금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다.</p>  
<p>'...'</p>  
<p>진우는 조마조마하게 시스템의 대답을 기다렸다. 평소와 달리 시스템의 대답이 느려진 것 같았다.</p>  
<p>띠링!</p>  
<p>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는지 잠시 뒤 시스템이 응답해 왔다.</p>  
<p>[아이템: '저주받은 랜덤 박스'를 선택했습니다.]</p>  
<p>[선택한 아이템이 제공됩니다.]</p>  
<p>스르르.</p>  
<p>발 앞에 작은 상자가 나타났다.</p>  
<p>'좋았어!"</p>  
<p>진우는 떨리는 심정으로 상자를 주워 들었다. 그런데 상자의 무게가 익숙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.</p>  
<p>설마?</p>  
<p>급히 상자를 열고 안을 확인한 진우가 눈을 크게 떴다.</p>  
<p>"...이건?"</p>  
<p>\*\*\*</p>  
<p>악마성을 나온 진우는 곧장 집으로 향했다.</p>  
<p>일단 좀 씻고 싶었다.</p>  
<p>던전 안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씻지를 못했다. 물이야 상점에서 구하면 되지만 씻지 만한 공간이나 시간이 없었다.</p>  
<p>'사방에 몬스터가 가득한데 한가롭게 샤워나 하고 있을 여유가...'</p>  
<p>쏴아악-</p>  
<p>집에 도착해 온수에 몸을 맡기니 이제야 진짜 던전을 벗어난 기분이 들었다.</p>  
<p>'역시 집이 좋구나.'</p>  
<p>옷까지 새로 다 갈아입은 진우가 젖은 머리 위에 수건을 얹고 나와 침대에 걸터앉았다.</p>  
<p>이제 정리를 좀 해야 할 시간이었다.</p>  
<p>먼저 상태창을 불러냈다.</p>  
<p>'상태창.'</p>  
<p>띠링.</p>  
<p>눈앞이 어지러울 정도로 긴 문자열이 떠올랐다.</p>  
<p>진우의 시선이 스탯창에서 멈췄다.</p>  
<p>[분배 가능 능력치 포인트: 20]</p>  
<p>퀘스트 완료 보상으로 받은 능력치 포인트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.</p>  
<p>당연히 전부 지능을 찍었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스탯]</p>  
<p>근력: 178 체력: 137 민첩: 147 지능: 149 감각: 119</p>  
<p>이제야 간신히 지능이 다른 스탯을 앞서게 됐다.</p>  
<p>아직 근력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지능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얼마 전까지의 상황을 떠올리면 장족의 발전이라 할 수 있었다.</p>  
<p>근력, 체력, 민첩, 지능, 감각.</p>  
<p>균형이 잡혀 가고 있었다.</p>  
<p>'무엇 하나 버릴 스탯이 없었지.'</p>  
<p>어쩌다 보니 하나씩 전부 다 집중적으로 투자해 본 기간이 있었고, 모든 스탯이 각자의 영역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.</p>  
<p>'잠깐...'</p>  
<p>기왕 이렇게 된 거 어떤 스탯 하나에 집중할 게 아니라 모든 스탯을 고루 올리는 것이 어떨까?</p>  
<p>올 스탯 플레이어.</p>  
<p>문득 그런 욕심이 생겼다.</p>  
<p>어느 하나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스탯이 없어서 할 수 있는 행복한 고민이었다.</p>  
<p>'지능이 근력보다 높아지면 다른 스탯들도 조금씩 맞춰 가자.'</p>  
<p>결론을 내린 진우는 스킬창으로 눈을 돌렸다.</p>  
<p>거기에 세 번째 보상이 있었다.</p>  
<p>[보상 3. 공개되지 않는 보상]</p>  
<p>첫 번째 보상인 '원하는 아이템'과 두 번째 보상인 '보너스 스탯'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세 번째 보상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.</p>  
<p>그냥 호기심 정도?</p>  
<p>하지만 막상 보상을 받고 나서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.</p>  
<p>[보상 3이 지급됩니다.]</p>  
<p>메시지와 함께 손안에 나타난 것은 '진입 허가서'와 비슷한 크기의 두루마리 문서였다.</p>  
<p>'뭐지?'</p>  
<p>생각지도 못했던 보상 방식에 진우는 놀란 눈으로 두루마리를 펼쳤다.</p>  
<p>[도안: 생명의 신수]</p>  
<p>아이템 '생명의 신수'의 제작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.</p>  
<p>진우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'아이템을 직접 만들 수 있다고?'</p>  
<p>마력이 담긴 무기는 마법 계열 각성자들만 만들 수 있는 줄 알았는데... 생각해 보니 자신도 마법계열이긴 했다.</p>  
<p>'그래도 도안만 있으면 아이템을 만드는 방법을 알 수 있다니...'</p>  
<p>진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.</p>  
<p>동시에 의문이 떠올랐다.</p>  
<p>무엇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걸까?</p>  
<p>'생명의 신수가 뭐지?'</p>  
<p>진우는 도안에 적힌 '생명의 신수'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읽어 내려갔다.</p>  
<p>[아이템: 생명의 신수]</p>  
<p>입수 난이도: S</p>  
<p>종류: 소모품</p>  
<p>강한 마법의 힘으로 모든 병을 낫게 하는 신비로운 물약입니다. 한 병을 모두 사용했을 때만 온전한 효과가 나타납니다.</p>  
<p>'모든 병을... 치료할 수 있다?'</p>  
<p>진우는 설명을 읽자마자 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떠올렸다.</p>  
<p>아이템의 효과가 타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은 이미 유진호를 통해 몇 번 확인을 끝냈다.</p>  
<p>정말 '생명의 신수'를 만들 수 있다면 어머니를 구할 수 있다는 말.</p>  
<p>두루마리를 쥐고 있는 손끝이 흥분으로 가볍게 떨렸다.</p>  
<p>재료도 간단한 편이었다.</p>  
<p>'세계수의 파편.'</p>  
<p>50층에서 볼칸을 죽이고 얻었다.</p>  
<p>'메아리 숲의 샘물.'</p>  
<p>이건 75층의 네크로맨서 메투스를 잡고 획득했다.</p>  
<p>그리고 마지막 하나.</p>  
<p>'...정화된 악마왕의 피.'</p>  
<p>아직 나오지 않은 템이다.</p>  
<p>하지만 앞선 두 개의 재료템들이 보스들에게서 나왔음을 생각하면 '악마왕의 혈액' 또한 어디서 구할지 쉽게 짐작해볼 수 있었다.</p>  
<p>위쪽.</p>  
<p>'아마도 꼭대기에 있을 악마성의 최종 보스를 말하는 거겠지.'</p>  
<p>즉 악마성 던전을 클리어해 나가면 '생명의 신수'를 제작할 수 있는 재료가 순서대로 하나씩 모인다.</p>  
<p>그때.</p>  
<p>"아."</p>  
<p>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흘러나간 침음성.</p>  
<p>그만큼 진우는 놀랐다.</p>  
<p>어쩌면... 축복받은 랜덤 박스에서 말하던, 내가 원하는 아이템이란 이 생명의 신수가 아니었을까?</p>  
<p>'어머니...'</p>  
<p>건강해진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.</p>  
<p>그때 메시지가 떠올랐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'도안: 생명의 신수'를 통해 제작 스킬을 배울 수 있습니다.]</p>  
<p>[제작 스킬을 습득하시겠습니까?]</p>  
<p>기계음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.</p>  
<p>생명의 신수를 제작하기 위해선 악마성 던전 공략에 성공해야 했다.</p>  
<p>그러려면 한시라도 빨리 공략 장비를 갖추고서 다시 돌아와야 한다.</p>  
<p>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다.</p>  
<p>"...배운다."</p>  
<p>['아이템: 생명의 신수' 제작 스킬을 습득하였습니다.]</p>  
<p>'이게 꿈은 아니겠지?'</p>  
<p>하지만 기억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해 주고 있는 것처럼 스킬창 맨 끝에는 [제작 스킬] 칸이 생겨나 있었다.</p>  
<p>[제작 스킬]</p>  
<p>소모품: 생명의 신수 (2/3)</p>  
<p>뒤에 있는 숫자는 아마도 세 개의 재료 아이템 중 두 개, '세계수의 파편'과 '메아리 숲의 샘물'이 있다는 뜻이겠지.</p>  
<p>'참.'</p>  
<p>진우는 창고를 열어 샘물 옆에 있는 아이템 하나를 꺼냈다. 작은 동물의 머리뼈들을 엮어서 만든 것 같은 목걸이였다.</p>  
<p>[아이템: 악마 군주의 목걸이]</p>  
<p>입수 난이도: S</p>  
<p>종류: 장신구</p>  
<p>민첩 +20, 지능 +20</p>  
<p>악마 군주의 귀고리, 악마 군주의 반지와 함께 착용하면 세트 효과가 개방됩니다.</p>  
<p>세트 효과 1. (개방 안 됨)</p>  
<p>세트 효과 2. (개방 안 됨)</p>  
<p>망령의 지도자가 메투스에게서 얻은 아이템은 '메아리 숲의 샘물' 하나만이 아니었다.</p>  
<p>이 악취미가 느껴지는 혐오스런 디자인의 목걸이도 같이 나왔다.</p>  
<p>'어째 목걸이들은 하나같이...'</p>  
<p>현재 착용 중인 개목걸이를 떠올리며 인상을 찌푸리던 진우가 '악마 군주의 목걸이'를 목에 가져다 댔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'파수꾼의 목걸이'를 '악마 군주의 목걸이'로 교체하시겠습니까?]</p>  
<p>파수꾼이나 악마 군주나 옵션은 비슷하다. 스탯 두 개를 +20씩. 하지만 악마 군주에는 세트 옵션이 있었다.</p>  
<p>'교체.'</p>  
<p>스르륵.</p>  
<p>['아이템: 악마 군주의 목걸이'를 착용하였습니다.]</p>  
<p>해골 목걸이가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개목걸이가 나타났다.</p>  
<p>개목걸이를 창고에 쑤셔 넣은 진우가 악마 군주 장신구 시리즈의 옵션을 확인했다.</p>  
<p>[아이템: 악마 군주의 목걸이]</p>  
<p>세트 효과 1. 모든 스탯 +5</p>  
<p>세트 효과 2. (개방 안 됨)</p>  
<p>'스탯이 전부 5씩 올라갔다.'</p>  
<p>세트 효과 하나만 개방됐을 뿐인데도 무려 5레벨을 올린 효과가 났다.</p>  
<p>거기다 아직 시리즈 전부를 모았을 때의 효과가 남아 있었다.</p>  
<p>'악마 군주의 반지...'</p>  
<p>보통 세트 옵션은 부분을 모았을 때보다 전부를 모았을 때가 더 크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엄청난 성능이었다.</p>  
<p>하지만 S급 장신구들은 악마성에 들어가 얻은 성과 중 일부에 불과했다.</p>  
<p>진짜 소득은 껑충 뛰어 버린 레벨.</p>  
<p>진우는 어느덧 77까지 올라 있는 자신의 레벨을 보면서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.</p>  
<p>'일주일 만에 16레벨을 올렸다.'</p>  
<p>C급 던전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속도의 레벨업이었다.</p>  
<p>7일 동안 오지(?)에서 고생한 대가를 톡톡히 챙겨 나온 것이다.</p>  
<p>아직 볼일이 남아 있긴 했지만 이번 악마성 던전 공략은 어떻게 봐도 성공적이었다.</p>  
<p>'단지...'</p>  
<p>단 하나,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을 뿐.</p>  
<p>진우는 저주받은 랜덤 박스에서 나온 아이템을 형광등 불빛에 비쳐 보았다.</p>  
<p>'이건 대체 뭐지?'</p>  
<p>빛을 전부 흡수해 버리는 것같이 검은 열쇠.</p>  
<p>어떤 정보도 뜨지 않았다.</p>  
<p>'정보가 아예 안 뜨는 아이템은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...'</p>  
<p>인던 열쇠 아이템 종류야 그냥 랜덤 박스에서도 가끔 튀어나올 정도로 흔하지만 이런 녀석은 처음이었다.</p>  
<p>'어디에 쓰는 걸까?'</p>  
<p>저주받은 랜덤 박스에서 나온 아이템이어서 그런지 불길한 기운도 살짝 맴도는 듯했다.</p>  
<p>그래도 힘들게 얻은 건데 버릴 수야 없는 노릇이고.</p>  
<p>'언젠가 필요한 때가 생기겠지.'</p>  
<p>저주받은 랜덤 박스는 필요한 아이템을 제공해 준다고 했으니까.</p>  
<p>열쇠까지 창고로 보낸 진우가 몸을 일으켰다.</p>  
<p>악마성을 완벽히 공략하기 위해서 구해야 할 아티팩트들이 있었다.</p>  
<p>'팔 것도 좀 있고.'</p>  
<p>그런데 문제는 E급 헌터가 상위급 아티팩트들을 사고팔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거다.</p>  
<p>상급 헌터들도 구하기 힘든 귀한 물건들을 하급 헌터. 그것도 가장 밑바닥의 헌터가 가져온다면 누군들 의심을 안 할까?</p>  
<p>사는 것도 마찬가지.</p>  
<p>E급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이상 돈의 출처를 밝히기가 곤란해진다.</p>  
<p>'고가의 아티팩트를 어디에다 쓸 거냐는 질문에도 답하기가 힘들겠군.'</p>  
<p>여러모로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.</p>  
<p>"그러면 이제..."</p>  
<p>E급 흉내는 그만두자.</p>  
<p>등급 재심사.</p>  
<p>이제 진짜 실력에 맞는 등급을 받아야 할 때가 왔다.</p>  
<p>진우의 표정이 진지해졌다.</p>  
<p>'이 정도까지 레벨을 끌어올렸으면 타의에 휘둘리지는 않겠지.'</p>  
<p>애초에 목적은 그것.</p>  
<p>더 큰 힘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다소 불편함을 무릅쓰고 여태 E급으로 지내 왔다.</p>  
<p>그런데 지금은?</p>  
<p>백호 길드의 마스터 백윤호를 앞에 두고도 흔들리지 않았다. 아니, 백윤호가 아니라 다른 누가 오더라도 당당할 자신이 있었다.</p>  
<p>더 이상 실력을 숨겨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.</p>  
<p>두근, 두근, 두근.</p>  
<p>지긋지긋하게 뒤를 따라다녔던 E급 꼬리표를 뗄 생각에 심장 박동이 조금씩 커져가기 시작했다.</p>  
<p>'그 전에.'</p>  
<p>먼저 확인할 게 하나 있었다.</p>  
<p>진우는 헌터폰의 전원을 넣었다.</p>  
<p>일주일 만에 켜 본 거라 연락이 여기저기서 많이도 와 있었다.</p>  
<p>대부분이 모르는 번호.</p>  
<p>당사자들에게는 안타깝지만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가 않았다.</p>  
<p>'급하면 알아서 다시 연락하겠지.'</p>  
<p>그런 쿨한 마인드로 통화 목록을 쭉쭉 내리던 진우는 그 속에서 원하던 번호를 찾아내 통화를 눌렀다.</p>  
<p>[따라라~ ♩♪]</p>  
<p>경쾌한 노랫소리가 채 두 마디도 나오기 전에 상대가 칼같이 전화를 받았다.</p>  
<p>-형님!</p>  
<p>던전에 너무 오래 있었나?</p>  
<p>이 녀석 목소리가 반가울 때도 있네.</p>  
<p>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입술을 뗐다.</p>  
<p>"아버지와는 이야기 잘됐냐?"</p>  
<p>-네! 잘됐습니다, 형님!</p>  
<p>'오호?'</p>  
<p>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다.</p>  
<p>유진호와 아버지의 거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급 재심사를 받을 순 없으니 전화를 걸었던 거다.</p>  
<p>그런데 그쪽 문제가 끝났다면 정말 거리낄 것이 없었다.</p>  
<p>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들떠 있을 때부터 짐작하긴 했지만 그래도 본인에게 직접 확인을 받으니 진우도 기분이 좋아졌다.</p>  
<p>-형님! 안 그래도 제가 그 일 때문에 형님을 찾아 뵙.</p>  
<p>뚝.</p>  
<p>'뭐지?'</p>  
<p>전화가 이상하게 끊긴다 했더니 배터리가 다 닳아 있었다.</p>  
<p>'하긴... 악마성에 들어가기 전부터 배터리가 간당간당하긴 했었지.'</p>  
<p>그나마 용건을 모두 확인한 것이 다행이었다.</p>  
<p>진우는 옷을 챙겼다.</p>  
<p>헌터 협회 본부는 여기서 멀지 않다. 금방 재심사 과정을 끝낼 수 있었다.</p>  
<p>"아차차."</p>  
<p>문을 나서려던 진우가 급히 안으로 되돌아왔다.</p>  
<p>동생 때문이었다.</p>  
<p>일주일 만에 돌아온 오빠가 또 말없이 집을 나가면 걱정을 할지도 모르니까 동생을 위해 식탁 위에 간단한 메모를 남겼다.</p>  
<p>-오빠 왔다 간다.</p>  
<p>진우는 만족스런 미소를 짓고서 돌아섰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각성자 등급 심사 접수처는 진짜 오랜만이었다.</p>  
<p>'그게 벌써 4년 전인가?'</p>  
<p>아니면 5년 쯤?</p>  
<p>진우는 감회에 젖은 얼굴로 접수처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앞에 섰다.</p>  
<p>직원은 얼굴도 들지 않고서 말했다.</p>  
<p>"신분증하고 연락처 적어서 주세요."</p>  
<p>대략적인 절차를 기억하고 있었던 진우는 미리 준비해놨던 신분증과 연락처를 능숙하게 내밀었다.</p>  
<p>'응?'</p>  
<p>직원이 진우의 신분증을 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렸다.</p>  
<p>"이거 헌터 자격증이신데요?"</p>  
<p>"예."</p>  
<p>직원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.</p>  
<p>"등급 판정에 불만이 있으시면 저희 부서가 아니라."</p>  
<p>"아니요. 재심사를 받고 싶습니다."</p>  
<p>"예에?"</p>  
<p>진우의 얼굴과 헌터증의 사진을 번갈아보던 직원이 손가락을 들어올렸다.</p>  
<p>"자, 잠시만요."</p>  
<p>직원은 뒷자리에 앉아 있는, 신경질적인 인상의 중년 남성에게 달려갔다.</p>  
<p>"대리님. 웬 헌터 분이 재심사를 받고 싶다고 찾아오셨는데요?"</p>  
<p>"재심사? 지금 등급이 어디길래?"</p>  
<p>"E급입니다."</p>  
<p>대리는 고개를 슥 내밀고 접수처에서 기다리고 있는 진우의 얼굴을 보더니 다시 자세를 바로 했다.</p>  
<p>"가끔 있어. 자기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망상에 빠져 있다가 혹시 하면서 찾아오는 헌터들."</p>  
<p>"그럼 저 남자도?"</p>  
<p>대리가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"재각성은 무슨... 남들은 헌터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, 이름도 알리는데 자기는 그게 아니니까 현실도피를 하는 거지."</p>  
<p>"아하."</p>  
<p>"저런 사람 오래 상대하면 피곤해지니까 재심사 비용은 본인한테 청구된다는 거 알려 주고 대충 측정실로 보내."</p>  
<p>"옙."</p>  
<p>직원은 복통이 말끔히 사라진 것 같은 얼굴을 하고서 제자리로 돌아갔다.</p>  
<p>대리는 직원과 진우를 바라보면서 혀를 끌끌 차더니 다시 모니터로 눈을 돌렸다.</p>  
<p>그런데.</p>  
<p>대리의 손가락이 멈췄다.</p>  
<p>아까 헌터중에 적힌 이름...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.</p>  
<p>'어디서였더라?'</p>  
<p>대리는 남자가 측정실 건물로 사라지고 나서 직원에게 슬며시 다가가 물었다.</p>  
<p>"방금 그 E급 헌터, 이름이 뭐라고?"</p>  
<p>"성진우라고 하던데요. 혹시 아는 사람이세요?"</p>  
<p>"아니, 그런 건 아닌데."</p>  
<p>자꾸만 어디서 본 것 같은 이름이란 말이지.</p>  
<p>기억을 떠올리려고 애쓰던 대리가 문득 뇌리를 스친 생각에 눈을 크게 떴다.</p>  
<p>'아!'</p>  
<p>그 양반이 부탁했었지!</p>  
<p>혹시 성진우라는 헌터가 이리로 오게 되면 연락 좀 해달라고.</p>  
<p>왜 그게 기억이 안 났을까?</p>  
<p>대리는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긴 뒤 부랴부랴 폰을 들었다.</p>  
<p>뚜르르, 뚜르르.</p>  
<p>-예, 백윤홉니다.</p>  
<p>"아, 백 사장님. 다름이 아니고 저번에 말씀하셨던 헌터 말입니다. 그 성진우라는 헌터요. 진짜 왔습니다. 아니, 어떻게 그 사람이 여기 올지 어떻게 아셨어요?"</p>  
<p>-성진우 씨가 거기 왔다고요?</p>  
<p>"네. 방금 와서 재심사 신청했습니다."</p>  
<p>-...</p>  
<p>갑자기 대화가 끊기며 정적이 감돌았다.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.</p>  
<p>-잠시만이라도 재측정 시간을 연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제가 당장 그리로 가겠습니다.</p>  
<p>대리는 고개를 갸우뚱거렸다.</p>  
<p>착각인가?</p>  
<p>천하의 백호 길드 마스터가 초조한 듯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.</p>  
<p>'별 일도 다 있지.'</p>  
<p>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이미 재심사 과정은 자신의 손을 떠나 있었다.</p>  
<p>대리는 옆머리를 긁적거리며 대답했다.</p>  
<p>"그 사람 벌써 측정실 건물로 갔는데요?"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